

이재명 대표 23일 당무 복귀... 통합 메시지·민생 대책 주목

체포안 가결과 윤리심판원 회부 결정 소모적 갈등 우려 '통합 방점' 관측 당분간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3일에 당무에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그가 내놓을 통합의 메시지가 주목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와 관련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청원을 반려하는 통합의 행보와 함께, 보다 구체적인 민생 대책을 내놓으며 수권정당의 모습을 제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19일 권혁기 당 대표 정부기획실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내일 재판에 출석하고, 다음 주 월요일 당무에 복귀한다"며 "이 대표는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 주제를 시작으로 당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8월 30일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나선 뒤, 건강이 악화하자 지난달 18일 병원에 입원했다. 또 이달 9일 퇴원한 뒤 자택에서 회복 치료를 받아왔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당무 복귀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당무 복귀와 함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와 관련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된 윤리심판원 회부 징계 청원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목이 쏠린다.

그동안 친명계가 다수인 최고위원들은 윤리심판

원 회부를 보류한 채 이 대표의 복귀만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 대표가 징계와 관련된 논의 시기를 확대하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이는 서둘러서 며칠 만에 결정하지 말자는 의미였다. 당무 복귀 후 정무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강서구청장 보결선거 압승을 통해 리더십을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윤리심판원 회부라는 강경책을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문제를 잘못 건드렸다는 오해로 당내 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징계 청원을 반려하고 통합의 메시지로 당내 결집을 이끌고 민생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으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병상에서 내놓았던 메시지처럼 당무 복귀와 함께 통합을 강조하며 당을 결집시키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징계안을 놓고 소모적 갈등이 불거지는 것은 오히려 이 대표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비명 정계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당내 시스템을 통해 징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윤리심판원 회부 자체가 정치적 보복으로 일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권혁기 실장은 이른바 체포동의안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관한 질문에는 "드

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민생경제 문제 해소에 여야, 정부가 모두 팔 걸여붙이고 나서야 할 때라는 점에서 큰 틀에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석인 후임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문제도 계파 갈등을 재점화할 뇌관이 될 수 있다. 지도부는 당초 총정권·원외·여성 인사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사실상 낙점하고 이 대표에 추천하려 했으나 비명계 반발에 원점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중립 성향의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발탁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하다"며 "지도부가 모두 친명의로 구성되는 것은 오히려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홍익표(맨 오른쪽)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광주시당 "5개 구청과 현안사업 공유"

광산구와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광주 5개 구청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광산구는 19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현안 및 예산확보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국민의힘 광산갑·을-광산구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김정현 광산갑 당협위원장, 안태욱 광산을 당협위원장, 광산갑·을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광산구 정에서는 박병규 정장, 오영걸 부구청장 및 담당실·국장이 참석해 협의 안건 설명과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주기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산구 발전을 위해 뛰고 있는 박병규 정장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광산구의 현안과 예산이 정책협의회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고 나머지 구청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현안

사업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광산구는 ▲송산유원지-서봉지구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 ▲청년 주거 독립 실 조성 및 운영사업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수원지구 공공부지 활용방안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구비 부담률 인하 등을 요청했다.

또한 ▲평동저수지 누리길 조성사업 ▲첨단 임방울대로 빛의 거리 조성사업 ▲신장동 반촌-매결마을 침수피해 방지사업 ▲송정 근린공원 시설개선사업 ▲첨단 대산근린공원 정비사업 등 구비 예산지원을 건의했다.

박병규 정장은 "국민의힘 협조를 받아 소통하면서 지역 현안도 함께 풀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광산갑 당협위원장은 "광산구 발전을 위해서로 상상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안태욱 광산을 당협위원장은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더욱 노력하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

민주 '의대 정원 확대·지역 의료 살리기' 공론화

TF 구성... "공공의대 설립·지역 의사제 도입 포함돼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공·필수·지역 의료살리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단순히 의사 수 늘리기에 머물지 않고 보건·의료 체계 재구성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부족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새벽 KTX 상경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절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가를 올린다고,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며 "결국은 국가가 공공 의료를 위해서 필수·지역 의료 인력 양성에 나서야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TF 구성과 활동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정부안이 좀 나와야 의원 구성과 검토할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공공·필수·지역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남 지역 의원들은 전남 국립 의대 신설을 강하고 요구하고 있다. 전남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시민에 다가간 '광주미디어아트 페스티벌'

4만2000명 방문...세계적 작가들 참여해 예술·대중성 조화

"2023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GMAF)에 4만2000여명의 방문객이 찾는 등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특히 예술성과 대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다소 생소한 미디어아트 장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과 야외광장에서 열린 GMAF에 총 4만2000여명이 방문했다. 사직공원 빛의 숲 등에도 3만8000여명이 찾아 미디어아트 작품을 즐겼다.

'빛도 꿈을 꾸는가' 기획전시전에는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새롭게 주목받는 뉴미디어들이 선보여 관심을 끌었다.

베니스비엔날레 참여작가인 이윤백과 이완,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에 빛나는 최찬숙, 에르메스상 수상자 류성실, 제16회 송은미술대상 수상자 김세진, 2021년 올해의 작가상 후보에 올랐던 오민 등 세계적인 작가들이 참여했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들이 참여한 국제전시 '넥스트 미디어아트의 눈'도 9개 도시 18개 팀 작품이 페스티벌 주 무대와 G.MAP 외벽 파사드를 통해 공개됐다.

또한, 희경투와 G.MAP을 연결하는 새로운 문화광장을 탄생시켰다는 점도 향후 광주의 새로운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동근해를 공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꽤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장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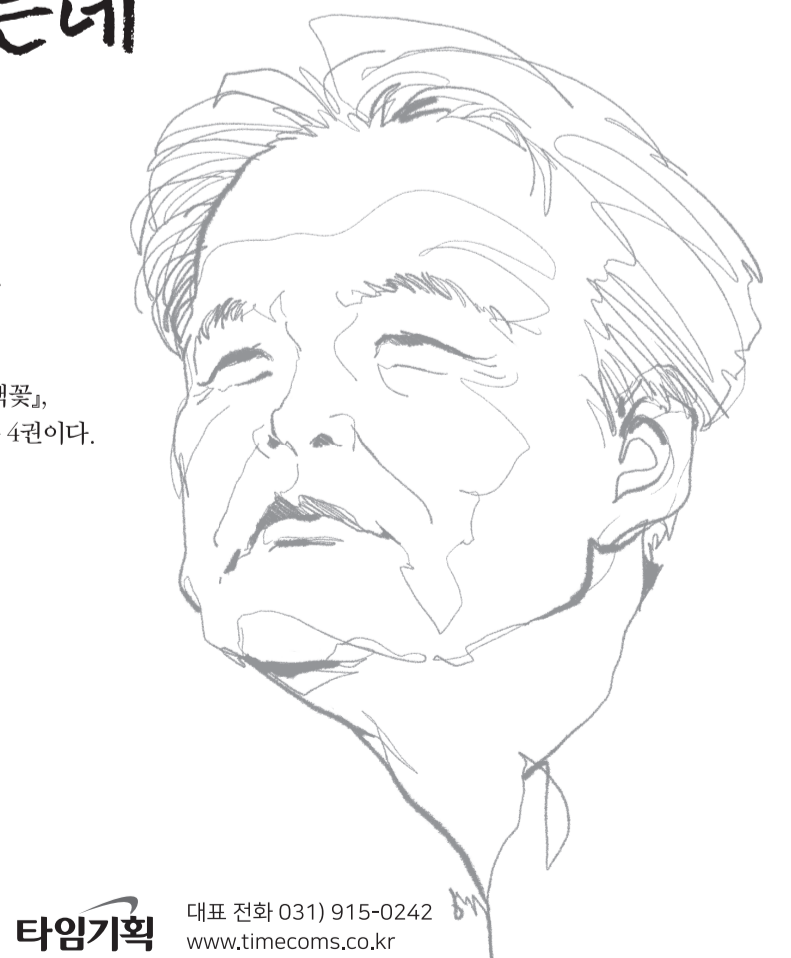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공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